

## 부모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신 말 속                      심 혜 원<sup>†</sup>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 역전을 일컫는 부모화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심리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부모화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부모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부모화 경험이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 이유는, 참여자의 연령의 차이, 질문의 내용의 차이,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참여자의 부모화 수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것이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모든 변인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부모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줄 것,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원을 찾아주는 것과 수치심을 줄여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구분하여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부모화 경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부모화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화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요어 : 부모화, 상담, 안녕감, 우울,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sup>†</sup> 교신저자: 심혜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0672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서초동)

E-mail : hwshim@kcg.ac.kr

한국 사회는 배려심이 있고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자녀를 철든 자녀로 보고(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좋은 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독립성이 있으며, 호감도와 성실성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특성은 아이다운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른스러운 어른의 특성과 더 유사하였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부모와 자식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자식의 부모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조은영, 정태연, 2004).

부모화는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 역전을 일컫는다(Jurkovic, Kuperminc, Perilla, Murphy, Ibanez, & Casey, 2004; Kuperminc, Jurkovic, Casey, 2009). 역할의 역전은 부모가 무기력하거나 안정된 것을 찾거나 의존적으로 행동을 하는 동안,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는 등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부모-자녀의 관계를 말한다(Lopez, 1986). 이러한 부모화가 사회적으로는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박적인 배려심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Davies, 2002). 부모화된 자녀는 받기보다 부모에게 주어야만 하고, 나이에 적절한 의존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의 욕구충족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들은 타인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며, 스스로 지치고 소모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통제감을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장미경 등 역, 2014).

많은 이론적인 그리고 경험 연구들은 적응에 관한 병리적인 결과와 같은 역할 역전에 대한 불리한 면을 강조하였다. 부모화 역할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Johnston, 1990)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자존감(Jacobvitz & Bush, 1996; Lopez, 1986)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모화된 자녀는 정체감 형성에 방해 받고 패배주의적인 성격특질을 형성하며, 과잉통제의 경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돌보는 역할을 떠맡는다(Jurkovic, 1997).

하지만 부모화 경험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도 보고된다. 적절한 수준으로 부모화가 된다면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학교부적응을 낮추며, 병리적인 문제를 내면화 하거나 외재화하는 것을 감소시킨다(McMahon & Luther, 2007), 또한 부모화 경험이 연령에 맞고 책임이 공평하다고 여겨졌을 경우, 개별화, 분화와 관련이 있고, 개인의 자율과 자제력, 그리고 가족 응집력을 발달시킨다(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문은미와 최명선(2008)은 부모화가 자아 분화의 하위 요인인 자아통합을 높여주고,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 중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외에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부모의 이혼(Hetherington, 1999), 가난(McMahon et al., 2007), 전쟁의 여파(Jur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이민(Kuperminc, et al., 2009; Walsh, et al., 2006) 등의 위협조건에서 자란 자녀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정서적 고통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자녀의 성숙, 유능감,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이끌기도 한

다는 것이다(Hetherington, 1999). 따라서 부모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적 정서나 대인관계문제, 혹은 문제 행동 등과 같이 부정적 요인과의 개별적 관계를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강선모, 2013).

상담자를 찾는 내담자의 절반 정도는 부모화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장미경 등 역, 2014),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화 경험이 내담자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일 것이다. 심리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부모화 경험이 병리적으로 작용할 때, 부모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부모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화가 병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담자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모화의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부모화의 원인과, 부모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들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루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에서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부모화의 정의

부모화는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부모-자녀간의 역할역전을 일컫는다(Jurkovic et al., 2004; Kuperminc, et al., 2009). 여기에서 역할의 역전은 부모가 무기력하거나 안정된 것을 찾거나 의존적으로 행동을 하는 동안,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는 등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부모-자녀의 관계를 말한다(Lopez, 1986). 이것은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가 충족시켜주고 돌보아 주는 것과는 반대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봄으로써 부모의 부모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부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자처럼 행동함으로써 배우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Earley & Cushway, 2002).

부모화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Schminberg (1948)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랄 경우에 역할의 역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Minuchin과 동료들(1967)은 ‘부모로서의 아이(parental chil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Minuchin, Montalvo, Guerny, Rosman, and Schumer, 1967), 부모화된 자녀는 부적절하게 부모하위체계에 관여하게 되고, 형제 하위체계로부터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다(Minuchin, 1974). 이후에 Boszormenyi-Nagy와 Spark(1973)는 처음으로 부모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Jurkovic(1997)은 부모화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부모화가 보다 직접적으로 행해지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행해지는가를 고려해야 하고, 둘째로는 부모화가 물리적으로 행해지는가 아니면 정서적

또는 심리적인 요구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표현적, 도구적 역할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고려이다. 네 번째는 보살핌의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 및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 그 다음으로, 보살핌이 적절한 나이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으로, 만약 어리고 적절하지 않은 나이에 돌봄의 책임이 주어진다면, 어린 아이는 돌봄의 과업을 수행할 내적 또는 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역기능적으로 부모화 될 수 있다. 또한 부모화가 자녀에게 어떻게 내면화 되었는가, 그리고 가족체계 내에서 자기와 타자, 하부시스템의 경계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부모화는 가족체계 관점에서 건강하지 않은 경계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화가 사회적으로 적법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Jurkovic과 Thirkield(1999)는 부모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가족원의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물리적 부모화 10문항, 부모와 가족을 정서적으로 돌보는 정서적 부모화 10문항, 가족에게 제공한 돌봄이 정당하고 호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불공평 10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별로 과거의 부모화와 현재의 부모화를 각각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부모화를 묻는 각각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에 의하면, 하위체계 중 부모-자녀 하위체계가 다른 세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체계 간 권위와 한계가 분명하면 건강한 가족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핵가족

의 경우, 기능적인 가족에서도 어머니의 부재 시에는 일시적으로 장녀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장녀의 역할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고,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여 혼동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자녀 하위체계 간에는 심각한 경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나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장남을 자신의 배우자로 기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이영분 등, 2014).

부모-자녀의 역할 역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자녀가 부모, 배우자, 또는 한쪽 부모의 동료의 역할을 맡고, 부모는 가족에서 자녀의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된다(Oznobishin & Kurman, 2009). 부모는 자녀로부터 지원과 보살핌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안내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요구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Oznobishin 등(2009)은 많은 경험 연구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역할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화의 개념은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는 등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역전을 의미하며, 부모화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부모화에 따른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모화의 유형

부모화는 자녀가 수행하는 부모화의 역할에

대하여 돌봄의 지속 기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행의 범위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와 적응적 부모화, 그리고 비 부모화(건강한 비부모화, 유아화)로 나눌 수 있다(Jurkovic, 1997). 먼저, 과도한 기능을 하는 파괴적인 부모화(destructive parentification)는 정서적·행동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요구와 행동을 참고 대신 가족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돕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감당할 수준을 넘어 역할을 떠안거나 광범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화의 상태가 정서적·행동적으로 부적응 적이거나, 병리적 증상이 나타날 때 파괴적 부모화라고 한다. 파괴적 부모화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 뿐 아니라 빈곤가정, 일중독이나 맞벌이 가정, 편부모, 재결합가정, 이혼이나 별거가정, 아동이 많은 가정,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 가정, 아동학대나 무시를 하는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파괴적 부모화는 어린 나이에 상실이나 고생스러운 생활이 계속될 때 우울해지며, 긴장될 때 받는 스트레스가 내면화 되면서 진행된다.

적응적인 부모화(adaptive parentification)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 책임을 부여하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서 이를 기대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의 역전은 정상적일 수 있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달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적응적 영역에서는 자녀의 조력이 인정을 받고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역할의 역전이 발생한다.

비부모화(nonparentification)란 부모화 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의 건강한 비부모화(healthy nonparentification)와 부모가 지나칠 정도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극도로 자녀의 역할기능이 부족한 상태인 유아화(infantalization)가 있다. 이와 같이 부모화는 경험의 수준에 따라

서 파괴적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적응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화 경험이 요구될 때조차도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화의 유형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물리적(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표현적) 부모화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도구적) 역할은 정서적이나 표현적 역할과는 다르게 집안 일을 돕거나 형제를 돌보는 등의 구체적인 기능적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표현적) 역할은 자녀가 가족의 사회적·정서적 필요가 요구되는 가족 간의 충돌에 대하여 중재역할을 하거나, 조언하고 안심시키는 등의 역할을 포함한다(Jurkovic, 1997). 도구적 역할은 부모의 건강 상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규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 역할은 부모의 빈곤이나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도구적 역할의 수행은 동생 돌보기, 장보기, 요리하기,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부모 돌보기, 돈 벌어오기 등이 있으며, 이것은 미누친(1974)의 부모화된 자녀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정서적 역할의 수행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기, 동료나 친구 같은 역할, 가족의 충돌을 중재하기, 지원하고 양육하고 안심시키기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요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Jurkovic, 1997).

이와 같이 부모화의 유형은 부모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와 기간,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파괴적 부모화와 적응적 부모화, 그리고 비 부모화로 나눌 수 있고, 부모화 수행의 역할에 따라서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

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모화의 원인

부모화의 원인은 학자들마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학자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화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Schmideberg(1948)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랄 경우에 역할의 역전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Bowlby(1973)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Minuchin(1974)은 부모-자녀 간 역할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감정적인 융합관계를 이루어 감정전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부모가 경쟁적으로 자녀의 지지를 얻고자 할 경우에 부모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Chase(1999)는 부모 중 한명이나 두 명 모두 사회적으로 부여된 부모 역할을 포기하거나, 부모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미성년의 자녀가 성인에게 지워진 양육 행동의 역할을 당연시할 때 부모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여학생들이 가족 내에서 집안일이나 가족 돌보기 등 물리적인 역할 경험을 많이 하고, 남학생들은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이나 정서적인 역할,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책임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는 연구(문비, 2006)도 있지만, 딸들이 부모화의 역할을 떠맡기 쉽다는 연구들(Goglia,

Jurkovic, Burt, Burge- Callaway, 1992; Mirkin, Raskin & Antognini, 1984)과 정서적, 물리적 부모화 모두 여학생에서 높다는 연구(이기학, 신주연, 2003)도 있다. 반면 부모화 정도의 차이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조은영, 2004)는 연구도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형제 수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는 형제가 많을수록 물리적 부모화의 경험을 많이 하고, 형제가 적거나 외동일수록 부모화 경험을 적게 하였다(이기학 등, 2003; 문비, 2006). 출생 순위를 보면 첫째나 가운데 자녀일수록 물리적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하고, 막내나 외동 자녀일수록 첫째나 가운데 자녀보다 물리적 부모화 경험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들로 인해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요구에 비해 자녀들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불공평을 경험하였다(문비, 2006). 이는 일반가정에 비해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양육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양육자와 자녀의 대화 및 접촉시간이 감소되고, 경제적 결핍이 양육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mato & Keith, 1991; McMahon 등, 2007)는 연구에서와 같이, 저소득층의 부모화된 자녀가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형제나 부모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돌봄을 수행하게 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부재경험(조은영 등, 2005; 이기학 등, 2003)도 부모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Hetherington, 1999), 별거의 경험, 구금, 군 입대,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자녀는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부모부재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이혼 가정의 부모는 장녀나 장남을 배우자의 대리자로 대하며, 자녀는 숙련된 기술과 애정으로 부모를 도울 뿐 아니라 부모를 위해 곁에 머물면서 부모가 재결합하기를 바라거나,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해 점점 더 부모의 소망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Delfos, 2004). 특히 부모의 부재 경험은 정서적 부모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비, 2006).

이외에도 부모의 질환이나 장애 유무에 따라 부모화의 차이를 보인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자녀는, 한쪽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물리적 역할이나 정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반면, 자신의 욕구는 무시되어 불공평함을 느끼게 된다(문비, 2006).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Alexander, 1992; Burkett, 1991)나, 침해적인 양육방식의 어머니(Jacobvitz & Sroufe, 1987)가 있는 가족도 부모화의 요인이 되며, 가족 구성원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화 경향이 높다(윤혜례, 2003; Carroll & Robinson, 2000; Chase, Deming & Wells, 1998).

부모가 만성적인 신체 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약물의존이 있어서 부모로서의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자녀들이 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Barnett & Parker, 1998; Winton, 2003).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아동도 형제자매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부모화를 경험하게 된다(Gath, 1974).

자녀의 심리내적 요인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모화의 차이는 기질이 민감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자녀가 부모의 강한 요구에 자신의 관심은 무시당하고, 부모가 자녀의 의존성과 충성심을 착취하면, 자녀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모화가 일어난다(Session, 1986).

부모화의 정도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자녀의 책임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칸의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청소년들은 유럽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가족에 대한 도움과 존경, 그리고 지원을 더 기대한다고 하였다(Fulgini, Tseng, & Lam, 1999; Hardway & Fulgini, 2006). 특히 한국사회는 자녀가 부모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과업으로 여겨 충동적이지 않고, 의젓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신적으로 분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의 요구를 내재화하는(조은영 등, 2004) 특성으로 인해,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부모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화는 연구자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고, 상황적인 요인들, 즉 성별, 형제 수, 부모의 학력, 부모의 부재경험, 심리내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모화의 영향

부모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기제는 대상관계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에 의하면 유아가 공생의 과정을 거쳐 분리와 개별화의 과정을 지나게 될

때, 부모화된 아이는 분리 개별화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분리하지 못하여 분열(splitting)의 기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Wells & Jones, 1998). 따라서 유아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대조되는 심리 표상들을 분리하거나 따로 떼어놓는 분열의 방어를 사용함으로써 취약한 아이로 남게 되고(Burt, 1992), 병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자기학대적, 자기애적 및 강박적 성격장애의 인격방식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Wells et al, 1998).

부모화된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며 성장하게 된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아동기 때 받기보다는 주는 것의 결과로 인해 종종 자신이 비어있거나 '내면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 때 타인이 도와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이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관계가 손상될 것을 걱정한다. 자신의 부모를 돌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통제감을 포기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낀다(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미 역, 2014).

많은 이론적인 그리고 경험 연구들은 적응에 관한 병리적인 결과와 같은 역할 역전에 대한 불리한 면을 강조하였다. 부모화 역할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Johnston, 1990)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자존감(Jacobvitz et al., 1996; Lopez, 1986)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모화된 자녀는 정체감 형성에 방해를 받고 패배주의적인 성격특질을 형성하며, 과잉통제의 경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돌보는 역할을 떠맡는다(Jurkovic, 1997).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부모화의 기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화의 책임이 적절하고 공정하다면, 자기 가치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알게 해주어 자녀의 발달을 용이하게 한다(Jurkovic, 1997). Barnett 등(1998)은 가족에서 상호간 책임감의 증가는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높이고, 성공의 경험을 주며 자기효능감의 강력한 예언자라고 하였다. Walker와 Lee(1998)는 부모화된 자녀가 개별화를 촉진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Herrer와 Maysseless(2000)는 부모화된 자녀가 잘 기능하고 정서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반인들의 역할 역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모화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모화의 영향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화의 영향에 관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부모화가 개인의 안녕감과 자아정체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화의 책임이 적절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압도 될 때(Burton, 2007), 그리고 부모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될 때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공평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화의 경험은 우울과 자아분화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화 경험은 크게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특성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특성으로는 안녕감, 자아정체감, 우울, 그리고 자아분화와 관련이 있었다. 먼저 부모화 경험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안녕감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안녕감, 개인의 자기실현과 의미 있는 삶에 초점을 둔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공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안녕감으로 나뉘는데 (Keyes, 2005), 부모화 경험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녕감을 높인다(유순화, 2010). 강선모(2013)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에서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화 경험이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수치심을 낮추어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화 경험 중에서 불공평을 느낄수록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모두에서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는데, 문소희(2013)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부모화와 사회적 안녕감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정서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문소희(2013)는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 매개한다고 하면서,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억압하거나, 이미 표현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러한 내담자의 정서 표현 및 갈등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정서를 반영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감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표현 갈등에 대한 기저를 다룰 것과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내담자의 안녕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다른 연구들과 결과가 다른 이유를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외에도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부모화의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파괴적 부모화 경험을 하고 있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수 있고, 농촌지역의 환경이 더 열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의 부모화 경험이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화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개성과 가족 간 유대감,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면, 자녀는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Hauser & Bowlds, 1990). 문은미 등(2008)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의 욕구를 위해 정서적으로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을 더 잘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안정된 느낌을 받을 때 자아정체감을 더 잘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정체성 발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 감정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가정에서 불공평한 경험을 많이 한 경우 주체성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가족들이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모화 경험과 우울과는 일관되게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는데, 조혜정과 이운주(201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감정이 부모화 경험의 모든 하위변인(도구적, 정서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현재보다 과거의 불공평 경험이 자녀의 심리, 정서적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정서적 부모화는 본격적으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뤄야 할 대학생 시기에 여전히 부모의 격정과 염려를 떠안고 부모를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돌볼 경우에 우울감정, 무기력,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대신 집안을 돌보는 일과 같은 물리적 부모화를 과거에 경험한 경우에는, 우울 증 신체/행동 둔화가 증가하였으나, 현재에 경험한 경우에는 우울감정과 신체/행동 둔화가 감소하였다. 성숙한 자녀에게 집안일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의 경험은 이후에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의 부모화 경험이 자녀에게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험인 반면 성숙한 자녀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에서도 심리적 부적응의 하위요인으로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등의 병인이 부모화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화 경험 중에서 정서적 돌봄과 불공평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평이 심리적 부적응을 가장 잘 설명하였는데, 보살피는 행동에서 주고받음이 공평치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대인관계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책임감, 분노, 불신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가 부모를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면서 가족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성장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공인원 등(2015)도 부모화된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적절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비난이나 무가치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공평한 주고받음이 아닌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모화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모화된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들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현재의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는 가족체계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신이 자라난 가족과 미분화된 상태에서 생활하던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 분리된 상태,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구경호, 유순화, 2012),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갈등을 겪게 된다(Hoffman, 1984). 구경호 등(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 중에서도 불공평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물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의 순으로 자아분화와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들은 불공평성

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자아 분화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화 경험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화 경험이 안녕감, 자아 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을 하는 연령이나 시기,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히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공평 요인과 상관없이 우울을 높이고 자아분화를 어렵게 하며,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우울하고 자아분화 수준은 더 낮았다.

####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대인관계 특성

부모화 경험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와 같이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타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고 배려를 받지 못한다(Bowlby, 1973). 따라서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은 적응적이지만 자신을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상호보완성이 깨짐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소외시키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진정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가치를 나누는 실존적 관계경험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Chase, 1999).

부모화의 경험과 대인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비(200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과배려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화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과 어울기를 어려워하고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쉽게 흥분하고 짜증을 낸다고 하였다.

이외에 전소연과 이정운(2012)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겪는다고 하면서,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욕구가 부모에 의해 거절당하고 충족되지 않음으로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는 부모 혹은 가족의 요구를 자기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Wells et al., 2000). 부모화 경험이 많은 내담자에 대해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다루주는 상담 및 치료가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를 덜어줄 것이 다(전소연 등, 2012). 박현정 등(2011)도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수치심 경향을 줄여주고 대인관계문제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강선모(2015)는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에서 부모화 경험이 공감을 높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화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반대의 결과이며, 그는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화로 발생한 취약요인만을 파악함으로써 부모화를 병리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관되게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에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이 부모화 경험을 도구적, 정서적, 불공평 요인을 하나로 묶어서 본 것과 다르게, 강선모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에서 불공평 요인을 따로 분류하여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불공평 요인이 빠졌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서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대인관계 문제(비사교성, 비주장성, 과배려성, 지배성, 성마름 등)에 대한 척도를 사용한 반면, 그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에 대하여 긍정적 질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또한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연령대에 따른 결과를 살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조은영 등(200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부모화된 자녀들이 가족이라는 역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족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화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가족의 배려자로서, 부모 욕구의 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위로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모 및 가족원으로부터 긍정적인 강화를 받아 지속되기 쉽지만, 이러한 특성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 마지못해 취해진다면 부모화된 자녀의 내적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강박적 배려자의 경우에는 소외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주위 반응에 대한 민감함, 자신감 부족, 열등감, 억울함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욕구의 대리자인 경우에는 열등감과 완벽 주의적 태도를, 책임자 및 지도자 역할의 경우에

는 통제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도덕적이고,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외에 부모의 위로자인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답답함, 엄마에 대한 불쌍함과 짜증, 죄의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화 경험이 낮은 학생들은 주로 진로문제나 자신감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및 성공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고, 가족 문제, 이성문제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부모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관계의 대상(가족, 또래, 사회)에 따라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연령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부모화 경험이 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심리적 특성과 대인관계 특성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같은 변인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참여자의 연령의 차이, 질문의 내용의 차이,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참여자의 부모화 수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Jurkovic(1997)은 자녀가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감당할 수준을 넘어 책무를 떠안거나 수행의 범위가 광범위 할 때, 과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파괴적인 부모화(destructive parentification)가 된다고 하였는데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에서는 부모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그 경험이 파괴적 수준인지, 적응적 수준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화를 다룰 때 그것이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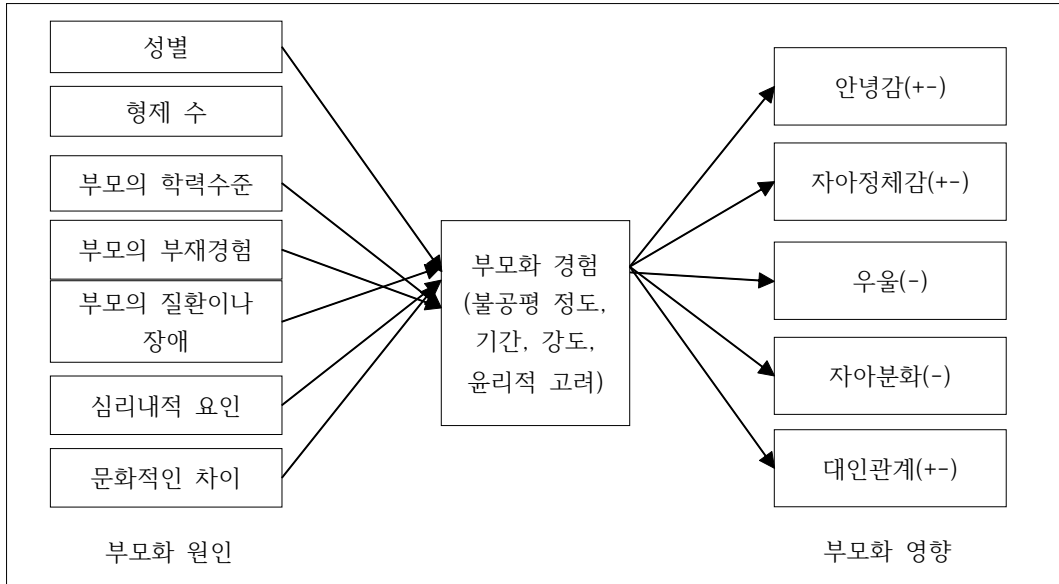


그림 1. 부모화의 원인과 영향(+긍정적 영향,-부정적 영향)

적으로 행해지는지, 역할의 형태는 어떠한지,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적합한 나이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Jurkovic, 1997)고 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부모화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1).

###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 문제의 이해

위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루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화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

족 안에서의 역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교육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Jurkovic(1997)은 파괴적인 부모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교육과 비공식적인 사회지원시스템을 강화할 것과 공식적인 서비스 시스템과 연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 사이에 끼어서 삼각화 되고 파괴적인 부모화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가정의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혼의 증가와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와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부모는 부모역할을, 자녀는 자녀역할을 훌륭하게 해내 부모 자녀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것이다(문은미 등, 2008).

둘째로는 내담자가 가정의 상황에 압도되어

과중한 책임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겨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담 장면에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부모화의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내담자의 물리적, 정서적 돌봄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화 경험이 연령에 맞고, 책임이 공평하다고 여겨졌을 경우 부모화는 개별화와 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개인의 자율과 자제력, 그리고 가족 응집력을 발달시키게 된다(Walsh et al., 2006).

세 번째는, 내담자가 부모화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 채 강박적으로 타인의 욕구를 맞추는 데에만 집착할 경우, 소외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조은영 등, 2005). 이 때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내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인에 대한 강박적인 배려심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네 번째로, 내담자는 자신의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수치심을 느껴 안녕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적절한 부모화 경험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안녕감에 도움을 주게 된다(강선모, 2013).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찾아주거나, 내담자가 가족 내에서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수치심에 대해 다루어줄 수 있다. 만약 상담 장면에서 내

담자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고, 이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내담자가 느끼는 수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줄여 줄 수 있다면, 내담자의 안녕감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을 통해 수치심에 대해 다루어줌으로써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현정 등, 2011).

마지막으로, 도구적 부모화는 정서적 부모화에 비해서 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심부름같이 자녀가 부모를 돕는 행동이 전통적으로 착하고, 순응적인 행동으로 칭찬과 격려를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홍정희, 2007). 하지만 Jurkovic(1997)은 도구적 부모역할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서적 역할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정서적 부모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의 아동기나 성인기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Boszormenyi-Nagy et al., 1973; Chase, 1999). 이기학 등(2003)의 연구에서도 물리적 부모화보다 정서적 부모화가 병리적 의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화의 양상을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불공평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자녀는 모든 심리적 요인이나 대인 관계 요인에서 예외 없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불공평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대인 관계적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부모화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부모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부모화 연구들은 주로 병리적인 결과와 같이 역할의 역전에 대한 불리한 면을 강조하였으나,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먼저 국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부모화 경험이 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을 때, 안녕감이나, 자아정체감, 그리고 대인관계 특성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뉘었는데, 이렇게 같은 변인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참여자의 연령의 차이, 질문의 내용의 차이,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참여자의 부모화 수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것이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모든 변인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 요인과 상관없이 우울을 높이고 자아분화를 어렵게 하였는데,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우울하고 자아분화 수준은 더 낮았다.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부모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줄 것,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원을 찾아주는 것과 수치심을 줄여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구분하여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부모화 경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인들의 지역적인 상황(도시, 농촌)이나 연령, 부모화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화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물리적환경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세대별로 부모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부모화의 수준에 따라 그 경험이 파괴적이거나 적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화 수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부모화가 직접적으로 행해지는지, 역할의 형태는 어떠한지,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적합한 나이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Jurkovic, 1997).

둘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부모화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에서 부모화의 경험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상담을 찾는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주로 대인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모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또는 대인 관계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화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분석: 수치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4(6), 3409-3431.
- 강선모 (2015). 부모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65-283.
-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 구경호, 유순화 (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관계. *상담학 연구*, 13(6), 2763-2776.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발달 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공인원,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부모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2(2), 21-47.
- 문 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소희 (2013). 지각된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직업교육연구*, 30(2), 35-49.
- 이기학,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상담학 연구*, 4(3), 421-436.
- 유순화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7(10), 233-252.
- 윤혜례 (2003).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중독자 자녀의 부모화(parentification).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미 (2014).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접근*. (E. Teyber & F. H. McClure, *Interpersonal process in therapy*). 서울: Cengage Learning(원전은 2011년 출판).
- 전소연, 이정윤 (2012).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3(1), 185-200.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 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조혜정, 이윤주 (2014).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5(6), 2345-2360.
- 이영분, 신영화, 권진숙, 박태영, 최선령, 최현미 (2014). 가족치료 모델과 사례. 학지사.
- 홍정희 (2007).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exander, P. C. (1992).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to the study of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185-195.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Barnett, B. & Parker, G. (1998). The Parentified Child: Early Competence or Childhood Deprivation?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Review*. 3(4), 146-155.
-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Basic Book, New York.
- Burkett, L. P. (1991). *Parenting behaviors of women who were sexually abused as children in their families of origi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Minnesota.
- Burt, A. (1992). *Generation boundary distortion: Implications for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GA.
- Burton, L. (2007). Childhood adultification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A conceptual model. *Family Relations*, 56(4), 329-345.
- Carroll, J. J., & Robinson, B. E. (2000). Depression and parentification Among Adults as related to parental workaholism and alcoholism.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8(4), 360-367.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D. Chase (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arentification* (pp.3-33). CA: Sage
- Chase, N. D., Deming, M. P., & Wells, M. C. (1998). Parentification, parental alcoholism, and academic status among young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2), 105-114.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Delfos, M. F. (2004). *Children and behavioural problems*. London,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Di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403-426.
- Earley, L., & Cushway, D. (2002). The parentified

- child.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2), 163-178.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1.
- Fulgini, A. J., Tseng, V., & Lam, M. (1999). Attitudes toward family obligations among American adolescents with Asian, Latin American, and European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70(4), 1030-1044.
- Gath, A. (1974). Sibling reactions to mental handicap: A comparison of the brothers and sisters of mong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5(3), 187-198.
- Goglia, L. R., Jurkovic, G. J., Burt, A. M., & Burge-Callaway, K. G. (1992). Generational boundary distortions by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hild-as-parent and child-as-mat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4), 291-299.
- Hardway, C., & Fulgini, A. J., (2006). Dimensions of family connectedness among adolescents with Mexican, Chinese,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246-1258.
- Hauser, S. T., & Bowlds, M. K., (1990).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rrer, Y., & Maysless, O. (2000). *Emoti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role reversal pattern in the family*. *Megamot*, 40, 413-441 (In Hebrew).
- Hetherington, E. M. (1999). *Should we stay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pp. 93-116). Mahwah, NJ: Erlbaum.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ce from the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170-178.
- Jacobvitz, D. B., & Bush, N. (1996). Reconstructions of family relations: Parent - child alliances, personal distress, and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732-743.
- Jacobvitz, D. B. & Sroufe, L. A. (1987). The early care-giver child relationship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in kindergarden: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8(6), 1496-1504.
- Johnston, J. R. (1990). Role diffusion and role reversal: Structural variations in divorced families and children's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39(4), 405-413.
- Jurkovic, G. J. (1997). *La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 Jukovic, G. J., Kuperminc, G. P., Perilla, J., Murphy, A., Ibanez, G., & Casey, S. (2004). Ecolog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on filial responsibility: Implications for primary prevention with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5(1), 81-104.
- Jukovic, G. J., Kuperminc, G. P., Sarac, T., &

- Weisshaar, D. (2005).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the post-war adjustment of Bosnia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motional Abuse*, 5(4), 219-235.
- Keyes, C. L. M.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4(1), 3-11.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 (2009). Rel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4-22.
- Lopez, F. G. (1986). Family structure and depression: Implications for the counseling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8), 508-513.
- McMahon, T. J., & Luthe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67-281.
- Minuchin, S., Montalvo, B., Guerney, B. G., Rosman, T., & Schumer, F. (1967). *Families of the slums*. Basic Books, New York.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rkin, M., Raskin, P., & Antognini, F. (1984). Parenting, protecting, preserving: Mission of the adolescent runaway. *Family Process*, 23(1), 63-74.
- Oznobishin O. and Kurman J., (2009). Parent-Child Role Revers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mmigrant Youth in Isra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3), 405-415.
- Schmideberg, M. (1948). Parents as children. *Psychiatric Quarterly Supplement*, 22, 207-218.
- Sessions, M. J. (1986) *Influence of parentification on professional role choice and interpersonal style*.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Walker, J. P., & Lee, R. E. (1998). Uncovering strengths of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0(4), 521 - 533.
- 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The Role of parentification and family climate in adaptation among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2), 321-350.
- Wells, M., & Jones, R. (1998).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parentification, splitting, and dissociation: Preliminary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331-39.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Winton, C. (2003). *Children as caregivers-Parental and parentified children*. Allyn Bacon. Boston.
- 1차원고접수 : 2016. 07. 05.  
수정원고접수 : 2017. 02. 01.  
최종게재결정 : 2017. 02. 23.

## Literature Review of Parentification: Focused on Implication in Counseling

Shin Malsook

Shim Haewon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individuals in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aspec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individuals seemed to be complicated, as it has been reported that parentification can gi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to the individuals depending on psychological variables. It was postulated that the different results might be due to the age of participants, differences in the questionnaires, regional difference, difference in the parentification level of participants, and etc. However, it was a common point in the studies that having the experiences of parentification gave negative effects on all the variables when children felt it unfair and/or burdensome. The following th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counseling the clients suffering from the problems resulting from parentification; 1) providing education to the parents as well when children and teenagers receive counseling, 2) helping them relieve the burdensome responsibility for their parents, 3) promoting the competence to realize and express their desires, 4) helping them find out the resources for social supports and diminish shame in their mind, 5) differentiating between their emotional roles and instrumental roles when counseling. Therefore, in the cases of the clients who have the psychological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it must be essential to know how the parentification influenced to the clients by analyzing the level and contents of parentification generat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experience of parentification are necessary to know what specific processes parentification influences to the individuals through, which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how the clients have the psychological problems and the difficulties i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Key words* : *parentification, counseling, well-being, self-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